



SK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기공급은 차질없이 준비중

〈보도 주요내용〉

4.29(월) 서울신문 「손발 안 맞는 부처, 이래서야 반도체 전쟁 이기겠나」,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에서는 SK는 계획 수립 때부터 LNG 발전소를 세워 전기를 공급받기로 했는데,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 중인 산업통상자원부가 탄소중립 등을 이유로 제동을 걸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SK E&S가 추진중인 LNG 열병합 발전기는 전기를 SK 하이닉스에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한전(전력시장)에 판매하기 위한 용도입니다.

SK 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38년까지 필요한 전기 2.8GW는 한전으로부터 공급받기로 하고 전력공급계약이 '21.12월에 이미 체결된 상태로 전기공급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정부는 전기공급이 필요한 경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원전, 재생 등 무탄소 전원 중심으로 확충해나가고 있으며, 화석연료 발전은 석탄폐지 후 LNG 대체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허가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신규 LNG 열병합 발전에 대해서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후 가능한 용량 범위 내에서 전력수급관리에 지장없는 범위에서 경제성, 사회적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한 사업자간 경쟁을 통해 허가해 나갈 계획입니다.

* 현재 열병합 허가신청 용량은 7개 사업자, 3.7GW로 제10차 전기본 여유용량(1.1GW)을 초과

추가로 열 공급은 자가 보일러*, 자가 열병합**, 사업용 열병합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특히, 자가 보일러, 자가 열병합 또는 폐지되는 석탄 발전소를 LNG로 전환하여 사업용 열병합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추진 가능합니다.

* 삼성전자 용인 반도체 공장은 자가 보일러를 설치하여 열공급 예정

** SK 하이닉스 이천·청주 반도체 공장은 자가 열병합 발전기로 자체적으로 열·전기 공급

아울러, SK 용인클러스터 조성공사와 관련해 ‘19년 조성계획 발표 후 인허가 문제로 개발이 지연되었으나, 이번 정부 출범 이후 당-정-지자체-기업 간 상생협약이 체결('22.11)되어 사업이 본 궤도에 올라 현재 부지조성 공사가 진행 중으로, 뺨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담당 부서	전력산업정책관 신산업분산에너지과	책임자	팀 장	박영진	(044-203-3925)
		담당자	사무관	현성보	(044-203-3921)
	첨단산업정책관 반도체과	책임자	과 장	이규봉	(044-203-4270)
		담당자	사무관	문경준	(044-203-4272)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